

전남, 출산율 상승... 비결은 '맞춤형 정책'

임신축하금에 탄생나무 심고 365일 시간제 보육·1억원 현금 지원
전남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올라... 영광군은 1.65명 '전국 1위'

영광군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신생아 이름을 딴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다. 숲이 나무로 가득 차 숲을 넓혀야 할 판이다. 군의 섬세하고 다양한 출산 정책 덕분에 영광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65명으로 5년 연속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의 가사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임신 가정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까지 관리하는 등 출산 가정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대폭 줄인 것으로 유명하다. 전남지역 시·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이다.

영광군은 1억원대 이상의 거액 현금성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에 갈 때까지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지원해 출산·육아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출산에서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장점이다.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00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9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입학축하금을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결혼사진 촬영비용 90만원을 지원하는 이색 시책도 펼친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인구 분포와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시책을 펼친 덕분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8년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지자체들의 정책은 대폭적인 출산·육아·교육비 지원은 기본이고, 출산가정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출산 후 산모의 정신 건강까지 돌보는 세심 행정은 물론 신생아 출산을 마을의 경사로 받아 들였던 전통 관습을 고려, 지자체 홈페이지에 출산 소식을 올려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이 낳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은 0.970명으로, 전년(0.969명)보다 소폭 올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자(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년보다 합계출산율이 오른 지역은 17개 광역

의료공백 해소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한다 ▶7면

복스- '야구의 나라' 개벽사상과 종교... ▶14-15면

광주FC, 주말 홈경기 강일 잡고 연습 간다 ▶18면

시·도 가운데 전남과 충북뿐이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78명에서 0.720명으로 줄었다.

전남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6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2년 '0명대'로 떨어졌지만, 1년 새 반등하며 지역 출산 시책의 가능성을 보였다.

전남지역 기초 시·군 가운데 강진과 장성, 함평, 보성, 담양, 영암, 나주 등은 '0명대'로 추락했던 출산율을 지난해 다시 끌어올렸다. 자치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였던 현금 지급성 출산시책을 정비하고, '결혼부터 자녀 교육까지' 아우르는 현실적인 정책 사업을 마련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출산지원 사업으로는 ▲여수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산전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30만원) ▲나주시 '365일 시간제 보육'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고흥군 '산모건강회복비' (첫째아 200만원 등),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화순군 '난임진단비' (50만원), '난임임양제' (6개월분) 지급 ▲해남군 '출산맘 건강회복' (3개월간 10만원씩), '임산부 전용 안전띠 대여' ▲장성군 '임산부 백일해 무료 접종' ▲진도군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1회당 5만원), '다둥이가정 축하물품', '다둥이가정 해피박스 지원' (유산군·아토피 로션 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험(목포·해남·곡성·진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목포·진도·함평·영광), 혼인 신고·백일 기념사진 촬영(여수·고흥), 임신부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여수), 발달장애 아동 제작(보성),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강진), 신생아 무료 작명(해남), 임신부 교통 지원(여수·광양·영광·완도·신안)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은 올해 334억2400만원을 들여 총 2만7956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완도, 신안 등이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전남도는 올해 '난자 냉동보관비'를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 관련 28개 사업에 국비 187억원·도비 105억원·시·군비 140억원 등 43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원(19.8%)이 늘어난 규모다.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 전남 자치단체들이 내놓는 시책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만 단기 현금성 지원보다는, 예전과 다른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의 심각한 인구소멸과 열악한 의료시설 기반에도 자치단체들의 눈물겨운 출산 지원정책 덕분에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8년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반갑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스타트’

KIA, 9·10일 창원서 NC 상대 원정 경기

우승을 향한 '호랑이 군단'의 리허설이 시작된다.

KBO 2024 시범경기가 9일 막을 올린다. 올 시즌 '다크호스'로 꼽히는 KIA는 창원으로 가서 NC를 상대로 9·10일 원정 경기를 갖는다.

KIA는 이후 대전으로 옮겨 한화와 11·12일 경기를 치른다. 13일 휴식일을 보내는 KIA는 14·15일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 승부한다.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T·삼성과의 4경기가 예정됐다.

KIA는 16·17일 KT와 경기를 치른 뒤, 18·19일 삼성과의 2연전을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막 엔트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KIA의 2024시즌을 엿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올 시즌 투·타의 조화 속 '디펜딩 챔피언' LG를 위협할 팀으로 꼽힌다. 양현종-이리-윤영철 '좌완 트리오'에 새 외국인 원투펀치 월크로우-제임스 네일이 단단한 선발진을 구성했다. 더 강력해진 마무리 정해영과 전상현, 최지민 등 '젊은 마운드'가 돋보인다.

지난해 큰 부상으로 쓰러졌던 핵심 멤버들도 완벽하게 캠프를 소화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손목이 골절됐던 박찬호와 종아리 부상에서 벗

어난 최원준이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첫 경기부터 공·수에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쇄골 골절 부상으로 신음했던 최형우도 캠프에서 두 경기를 소화했다.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던 나성범은 시범경기를 통해 2024시즌 시동을 건다.

이범호 감독에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 감독은 김중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사령탑에서 물러나면서 예상보다 빨리 사령탑에 올랐다. KBO리그에 80년대생 감독 시대를 연 이 감독이 본 무대에 앞서 워밍업을 한다.

12일 한화전은 특히 눈길 끄는 경기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한화로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이날 KIA를 상대로 실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18일 삼성과의 홈경기는 오후 6시 야간 경기로 진행된다. 연장전과 더불어 열리는 열리지 않고,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구성한다

물품 안전·소비자 피해 등 점검

정부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석한 해외 직구 관련 대응 점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직구 물품 안전 관리와 소비

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종합대책 TF를 만들기로 했다. TF 팀장은 국무2차장이 맡고,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종합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